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시험 문제지

인문계열 2회차

2017년 11월 26일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감독 확인	
----------	--

◆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2. 논술답안은 문항별로 한 가지 필기구(검정색 볼펜 또는 연필)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작성합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색갈펜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3. 답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는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4. 수정할 사항은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수정합니다.
5. 문제는 총 2문제이고, 답안지는 총 1장입니다.
6. 각 문제별로 지정된 답안지의 정해진 위치에 답안을 작성합니다.
7. 연습용지는 문제지 여백을 활용합니다.
8. 문제지(연습용지 포함)를 찢거나 분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9. 감독위원이 시험시작을 알리기 전까지는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10. 시험시작 후 문제지의 문항수를 확인합니다.
11. 시험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 모두 감독위원에게 제출합니다.

공 통 문 항

〈가〉

김지영 씨의 주변에도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일을 다시 시작한 엄마들이 많았다. 원래 일하던 업종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한 경우도 있었고, 방문 교사나 학원 강사, 공부방 창업 등 사교육 시장에 뛰어든 경우도 있었고, 캐셔, 서빙, 정수기 관리, 전화 상담 등 각종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절반 이상이 5년 넘도록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렵게 재취업하더라도 직종과 고용 형태 면에서 모두 하향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 이전의 직장과 비교해 보면 재취업 시 4인 이하 규모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두 배로 뛰고, 제조업과 사무직이 줄어드는 반면 숙박, 음식점업과 판매직은 늘어난다. 임금 조건 역시 좋을 리 없다.

무상 보육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 놓고 커피를 마시고, 손톱 관리를 받고, 백화점에서 쇼핑이나 하고 다닌다고들 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경제력을 갖춘 30대는 극히 일부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식당과 카페에서 음식을 나르고, 남의 손톱을 정리하고, 마트와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 엄마들이 더 많다. 딸이 태어난 후 김지영 씨는 또래의 일하는 여성들과 마주칠 때면 아이가 있을까, 몇 살일까, 누구에게 맡겼을까 궁금해졌다. 경기불황, 높은 물가, 열악한 노동현장……삶의 어떤 고난도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지영 씨는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반찬거리를 사러 마트에 들렀다가 마트 입구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평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지를 보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급 5600원, 주부 환영. 눈이 번쩍 뜨였다. 지금 점원도 주부인 것 같았다. 괜히 아이스크림을 한 컵 사 먹으며 구인광고에 대해 물었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본인도 두 아이 엄마인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4년 가까이 일했다고 한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그만 두는 거라며 많이 아쉬워했다.

“건물 안에 있는 거라 평일에는 손님이 많지도 않고, 날이 추워지면 더 한가해요.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푸느라 팔이 좀 아팠는데, 그것도 요령이 생기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2년 넘게 일하면 원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애기 엄마도 참. 무슨 그런 순진한 소리가 다 있어? 근로 계약서 쓰고, 4대 보험 되고 그런 알바 자리 없어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두 계약하고 적당히 내 통장으로 입금되다가 남편 통장으로 입금되다가 그러는 거지. 그래도 난 오래 일했다고 퇴직금 조로 조금 챙겨준다더라고.”

같은 아이 엄마라서 그랬는지, 김지영 씨가 순진한 소리를 해서 그랬는지, 점원은 마음이 쓰이는 눈치였다. 아이 어린이집 보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이만한 일자리 없다고, 일단 구인광고는 떼어 놓을 테니 생각해 보고 빨리 연락 달라고 했다. 김지영 씨가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대답하고 돌아서는데, 점원이 말했다.

“나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점원의 뜬금없는 말에, 어이없게도 김지영 씨는 울컥 서러워졌다. 내내 점원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

산업화와 더불어 과거에 지배적이던 ‘노동과 삶의 통일’은 깨지고 가족은 노동 및 경제 공동체라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남성은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가짐으로써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여성의 노동 및 삶의 상황 역시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여성들의 활동 중심이 집으로 국한되게 되었다. 이 때 여성의 노동 영역은 매일처럼 요구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것에서 완성된 상품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동시에 감정적인 과제가 확대되었다. 이제 여성의 과제는 매일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점차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은 눈에 띄지 않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가족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

이와 같이 남녀 사이에 새 노동 분업이 탄생하였다. 남성이 외부 세계와 직업과 사회를 담당하고, 여성은

가정과 집안일과 가족을 맡게 되었다. 직업적인 활동 영역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본성에 대한 관념까지도 구분되었다. 여기서 남성적 본성이란 활동성과 추진력과 힘과 이성이며, 여성적 본성이란 온순함과 겸손함과 감정과 감수성이다.

새로운 성역할은 이념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토대를 지닌 것이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역할은 임의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부상하는 산업사회의 토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상하는 산업사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바로 노동시장의 삶과 타인을 돌보는 일, 즉 '자유로운 시장'과 '평화의 오아시스로서의 가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에 대해 정반대되는 성적 특성이 구성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조적인 미덕들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졌다. 신분의 제약을 넘어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의 원칙은 출생에 따라 한쪽 성에게는 주어지고 다른 쪽 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남성에게는 자기 주장인 것이 여성에게는 자기 포기가 되는 것이다. 여성은 오로지 아이 돌봄, 곧 모성을 바탕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모성을 위한 자아 포기가 여성의 지고의 행복"이라는 모성에 이데올로기는 18세기에 시작돼 19세기에 번성했으며 20세기에 도 지속되어 교육서와 문학서, 예술에 스며들었고, 지금도 온존하고 있다.

<다>

여성들의 가정생활은 옛날에 비해 힘이 훨씬 덜 든다.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교한 기계들로 둘러싸여 지낸다. 그들은 콩을 재배하거나 저녁상에 내놓을 닭을 기르지는 않는다. 그저 식료품점에서 필요한 것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 또 양털을 깎아 빗질한 뒤, 그것으로 스커트나 코트, 담요를 만들기 위해 피륙을 짤 필요 없이 여성들은 카탈로그를 뒤지거나 백화점에 들러 옷을 구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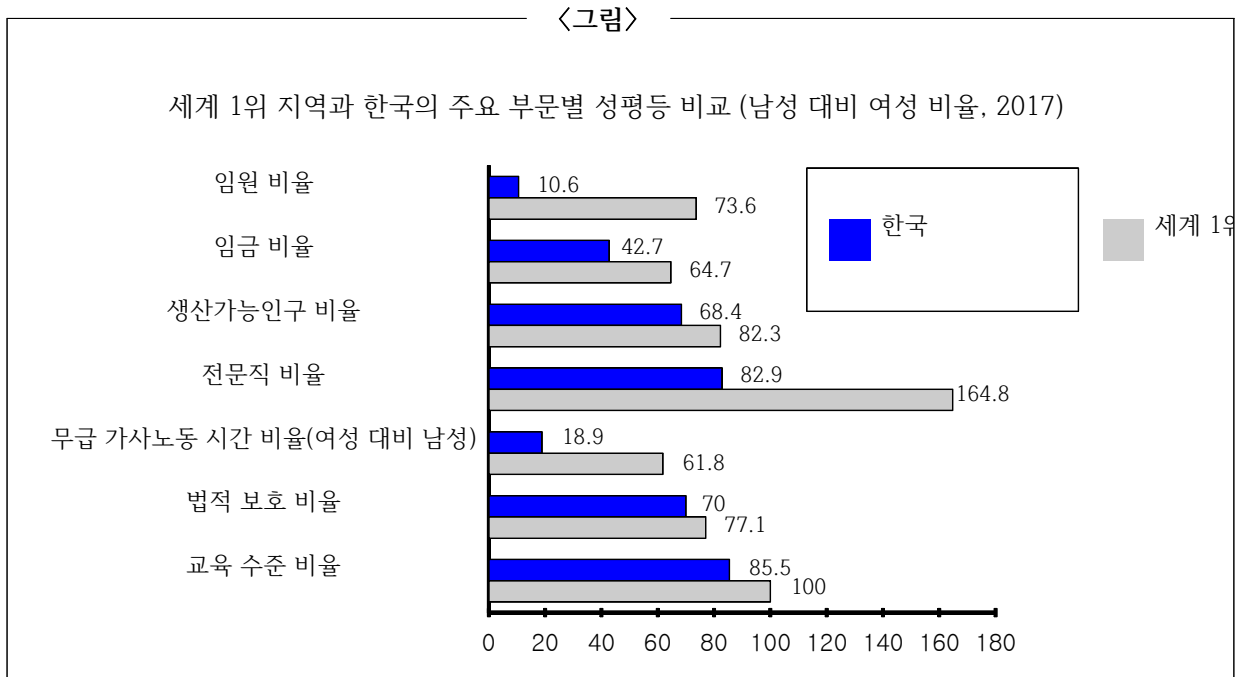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따뜻한 물, 분유, 통조림, 전구,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스토브, 전자레인지, 냉장고, 전기냄비, 편리한 조리 기구들, 전화기, 심지어 토요일 아침 TV까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발명품들은 요리, 세탁, 청소, 쇼핑 그리고 아기 양육 등 여성의 일들을 훨씬 쉽게 만들었다. 마침내 여성들은 집 밖에서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방된 것이다.

일자리 또한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 굴뚝과 조립 라인 산업이 퇴조하고 매우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와 서비스 분야가 성장하는 현실은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면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조작하는 사무 직종의 모든 일자리, 의료 및 기술 직종, 그리고 가르치는 일, 간호, 가정요양치료, 어린이 돌보기, 소매업, 서비스 산업 등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대체로 이런 일자리들은 남성들이 지닌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이런 일자리는 상당수가 파트타임이거나 근무 시간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여성들에게 호소력을 지니는 요소는 아닐까.

우리 시대의 노동력은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필요로 한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기를 출산하는 횟수도 훨씬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출생률의 감소 추세를 지속시키고, 여성들의 노동력 진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보다 적은 자녀들, 더욱 편리해진 가전제품들, 집 밖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일자리, 훨씬 높아진 여성들의 교육 수준 등, 이 모든 요소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노동력에 합류하도록 부추긴다.

1. <가>의 상황을 <나>와 아래 <그림>을 통해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1,000±100자)



계 열 문 항

〈가〉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다. 세상이 휩쓸려 가는데 따르지 않고 피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내가 걸으면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고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내 소리를 따른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있기에 생겨난 것이니 따르기를 피할 수 있겠는가? 그림자와 메아리가 묵묵히 앉아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럴 리는 없다. 어째서 상고시대의 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식을 따르며, 중국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나라의 발음을 따르는 것일까? 이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온갖 냇물이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 도리이다.

물론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천성과 사명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천하가 모두 주(周)나라를 새로운 천자의 나라로 섬기게 되었음에도 백이숙제(伯夷叔齊)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모든 꽃이 가을이면 시들어 떨어짐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여전히 푸른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렇지만 우(禹)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바지를 벗었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견주는 노(魯)나라 관례를 따르지 않았던가! 모두가 함께하는 마당에 시세를 위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마땅히 이치를 따라야 한다.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무슨 일이든 반드시 자기 마음에 물어보라.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니 행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치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니 그만둔다. 이렇게만 한다면 무엇을 따르든 모두 올바르게 되어 하늘의 법칙에 절로 부합할 것이며, 마음의 요구에 따라 행동해도 운명과 귀신이 모두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나〉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떠들어대었다.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똘하던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들끓는 소리는 더 커졌다. 궁금중에 건디다 못해 그는 엉거주춤 꾸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보았다. 포도에 뒤끓는 사람들은 손에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환성을 울리고 있었다.

‘무엇일까?’

그는 고개를 가웃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다. 혜숙이다.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숨을 헐레벌떡이며 이야기하는 혜숙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벅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인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혜숙이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 하고 바깥쪽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는 움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들을 끄집어내었다.

‘國語常用의 家’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 동안 깜박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들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 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뜻뜻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측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

었다.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잇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하 소리가 떠올랐다.

〈다〉

아마다바드의 집회가 끝난 바로 직후 나는 나디아드로 갔다. 후에는 널리 유행이 된 말이지만, 내가 히말라야적 오산(誤算)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쓴 것은 여기서였다. 아마다바드에 있을 때도 내 잘못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지만, 나디아드에 와서 사태의 진상을 내 눈으로 보고 케다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문득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지만, 케다 지방과 그 외 지방의 씨울*들을 시민 불복종에 나서게 한 것은 시기상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내 잘못을 고백했을 때 적잖이 조소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자기 잘못은 돋보기로 보고, 남의 잘못은 그와 반대로 보아야 둘을 정당하게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법칙을 충실히, 그리고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누구나 시민 불복종을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 먼저 국가의 모든 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대체로 사람들은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이 무섭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킨다. 도덕률에 관계되지 않는 법인 경우에 특히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마지못해 하는 복종은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발적인 순종은 아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의 모든 법을 이지적으로, 또한 자기의 자유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성한 자기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킨다. 이와 같이 사회의 모든 법을 성실히 지키고 난 후에야 누구나 어떤 법이 선하고 옳으며, 어떤 법이 사악하고 부당한지 능히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직 그런 다음에야 어떤 특정한 법에 대해 명확한 조건 아래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부여된다.

내 잘못은 이처럼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잘 알지 못한 데 있었다. 나는 씨울들이 이러한 자격을 스스로 갖추기 전에 시민 불복종에 나서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잘못이 내가 보기엔 히말라야같이 큰 것이었다.

〈간디, 『간디 자서전』〉

* 씨울: 민(民) 또는 민중(民衆)을 의미하는 말.

2. 〈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그’의 태도를 비판하고 〈다〉에서 말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조건’이 무엇 인지를 설명하시오. (1,000±100자)

연 습 지